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당시 조선의 노력을 살펴볼까요?

수업 목표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차시 구성

이 차시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조선 사람들의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도입

- 동기 유발하기
- 학습 문제 확인하기

전개

- 임진왜란의 전개와 극복 과정 살펴보기
- 임진왜란 극복에 기여한 인물 칭찬하기

정리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차시 예고하기

교과 역량

비판적 사고력, 정보 활용 능력

지도상의 유의점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조선인들의 의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수·학습 과정

도입

1 동기 유발하기

- 이전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하였나요?
-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 조선 전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 『부산진 순절도』 등 임진왜란에 대한 그림 자료를 보여 주며 그림에 그려진 모습을 설명해 봅시다. (지도서 254쪽 자료 1, 2 참고)
- 해안가에 배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 적들이 성벽을 위협하는 느낌이 듭니다.
- 전쟁이 시작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2 학습 문제 확인하기

임진왜란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살펴봅시다.

탐구해요

1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당시 조선의 노력을 살펴볼까요?

2

이 시간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3

조선은 나라를 세운 후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다. 반면 이웃 나라인 일본은 100여 년 동안 내부에서 전쟁을 거듭하면서 군사들이 잘 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분열되어 있던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에 조선과 명을 정복하기 위해 부산으로 침입하였다(임진왜란).

임진왜란 이전 조선이 처한 상황



적선이 바다를 덮고 몰려왔다. 태평한 세월이 200년 동안 이어져 백성들은 전쟁을 몰랐고 각 고을은 소문만 듣고도 놀라 무너졌다.

- 『선조실록』



전개

3 임진왜란이 일어난 배경 이해하기

지도+ 교과서 68쪽의 본문과 자료를 통해 임진왜란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전쟁인지 이해하도록 한다. 3포에 머무르는 일본인의 수가 많아지고, 일본과의 교역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조선은 무역 규모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발로 중종과 명종 대에 소란이 자주 일어났다. 이에 조선은 일본에 사신을 보내 정세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건국 후 약 200년 동안 평화를 누렸던 조선은 전쟁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였다. 그리고 1592년에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부산으로 쳐들어오면서 전쟁이 발발하였다.

-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의 상황은 어떠하였나요?
- 오랜 평화에 군사력이 약해졌고, 전쟁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였습니다.
-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훈련한 군사들이 조선 침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의 상황은 어떠하였나요?
- 준비 없이 전쟁을 맞아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4

전쟁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조선은 일본군이 쳐들어온 지 20여 일 만에 도읍인 한양을 빼앗겼다.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의주로 *피란하여 명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조선에 불리하던 상황은 수군과 *의병의 활약으로 점차 바뀌었다.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군에 계속 승리하였다. 육지에서는 **곽재우**를 비롯한 의병이 활약하였으며, 관군과 협력하여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 후 일본이 대륙까지 침략할 것을 걱정한 명이 조선에 군대를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과 명의 연합군은 평양성을 되찾았다.

***피란**: 전쟁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옮겨 가는 것을 말해요.
***의병**: 자기 고장과 나라를 지키고자 백성이 스스로 조직한 군대예요.



수업 도움 자료

교과서 수업 안내

교과서 68~69쪽에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이 처한 상황과 전쟁이 발발한 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후 전쟁 초반 조선에 불리하던 전세가 점차 바뀌는 과정과 그것에 기여한 인물들의 활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용어 해설

수군 조선 시대에 바다에서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던 군대를 이르는 말이다.

학습 준비물(교수·학습 자료)

교과서 붙임 7, 활동지(지도서 256쪽)

교과서 관련 질문 예시

- 조선 수군이 남해를 지킨 것은 전쟁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 임진왜란 당시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난 까닭은 무엇일까요?

4 임진왜란의 전개와 극복 과정 살펴보기

지도 + 교과서 69쪽의 본문과 자료를 통해 임진왜란의 전개와 극복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쟁 초반 조선에 불리하던 전세는 수군과 의병의 활약으로 바뀌었다. 일본군은 점차 육지에서도 식량이나 무기를 공급받기 어려워졌다. 그사이 조선 육군도 점차 힘을 되찾아 일본군에게 반격하였다. 한편 의주로 피란한 조선 조정은 명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명은 일본이 자국까지 침략할 것을 우려하여 지원군을 보냈다. 조선과 명의 연합군은 힘을 모아 1593년 1월에 평양성을 탈환하였고, 지쳐 있던 일본군은 한양으로 물러났다. **사회 생각**을 통해 임진왜란이 전국 규모의 전란이었음을 이해하게 한다.

- 임진왜란이 발생한 직후의 상황은 어떠하였나요?
 - 조선은 일본군이 쳐들어온 지 20여 일 만에 한양을 빼앗겼습니다.
 - 선조는 의주까지 피란을 갔습니다.
- 이후 바다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남해를 지켜서 일본 수군이 육지의 군대에 식량과 무기를 전달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 육지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 곽재우 등의 의병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 활약하였습니다.
 - 의병들이 가족과 고장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일본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 이순신, 곽재우 등의 활약에서 어떤 점을 본받고 싶은가요?
 - 훌륭한 전술로 일본 수군으로부터 남해를 지킨 이순신의 능력을 본받고 싶습니다.
 - 위험을 무릅쓴 곽재우의 용기를 본받고 싶습니다.
- 그 후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관군이 의병과 협력하여 일본군에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 일본이 대륙까지 침략할 것을 걱정한 명이 조선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일본군으로부터 평양성을 되찾았습니다.

수업 도움 자료

교과서 수업 안내

교과서 70쪽에서는 명군이 참전한 이후 일본군이 경상도 해안으로 물러났으며, 강화 회담이 결렬되면서 정유재란이 일어났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후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되새기고 역사적 교훈을 찾아보도록 한다.

그림 해설

교과서 70쪽의 첫 번째 그림은 권율의 부대가 행주산성에서 치른 전투를 묘사한 것이다. 두 번째 그림은 훈련도감을 설치한 유성룡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세 번째 그림은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명량 해협(진도)에서 일본군을 크게 이긴 장면을 표현한 것이다.

교과서 관련 질문 예시

- 일본군이 다시 조선을 침략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한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백성과 함께 싸우니 든든하구나!



형상 중이지만 일본이 다시 침략해 올지 모르니 힘을 키워야 한다.



나(이순신)는 군사들을 조용히 타이르면서 "적의 배가 비록 많다고 해도 우리 배를 곧바로 침범하지 못할 것이니,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다시 힘을 다해 적을 공격해라."라고 하였다.

- *난중일기

*난중일기: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쓴 일기를 모은 책이에요.

장간! 확인해요

□의 부대는 행주산성에서 백성과 함께 일본군을 물리쳤다.

소스로 활동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에게 상장을 수여해 봅시다. 붙임 ⑦ 활동

정답 160쪽

70

5 정유재란의 전개 과정과 왜란의 결과 살펴보기

- 명군이 참전한 이후 조선의 상황은 어떠하였나요?
- 권율의 부대가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크게 이겼고, 일본군은 경상도 해안으로 물러났습니다.
- 강화 회담이 실패하자 일본은 다시 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이후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전쟁에 대비한 조선은 일본에 맞서 싸웠고, 얼마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여 일본군은 물러갔습니다.

6 소스로 활동 임진왜란 극복에 기여한 인물 칭찬하기

활동 안내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을 떠올리며 역사적 교훈을 찾아본다.

활동 방법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에 대해 조사해 보게 한다. 이후 그가 활약한 사례나 일화 등을 담아 교과서 붙임 ⑦에 상장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을 한 명 골라 조사한 후, 그에게 상장을 수여해 봅시다.

정리

7 학습 내용 정리하기

- 임진왜란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말해 봅시다.
-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과 관재우 등의 의병이 활약하였습니다.
- 조선은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졌으며, 많은 백성과 문화유산을 잃었습니다.
- 장간! 확인해요를 풀어 봅시다. **답** 권율

8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에는 병자호란의 과정과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평가하기

평가 관점	상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중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말할 수 있다.
	하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7년 동안의 전쟁, 지금도 남아 있는 흔적

임진왜란이 벌어진 7년 동안 백성이 힘을 모아 전쟁을 극복했어요. 오늘날에도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적과 유물이 전국 곳곳에 남아 있어요.



행주산성을 지킨
권율 장군을 기리는
비석이란다.

경기도에는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에 승리
한 것을 기념하는 비석이 있어요.



의병장 조헌 등
700여 명이
몰린 곳이라네.

금산 칠백의총(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에는 임진왜란 때 적과 싸우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한 무덤과 사당이 있어요.



드디어 거북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여수 선소 유적(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에는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든 곳이라고
전해지는 장소가 있어요.



포탄을 쏘서
진주성을 지키자!

진주성의 화포(북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에는 임진왜란 때 조선군이 사용하던 화
포를 똑같이 만들어 둔 장소가 있어요.

71

수업 방법 및 활용

전국 각지의 유적과 유물을 보며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전국에서 일어났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문화재청이나 박물관 누리집에서 관련 자료를 감상하도록 할 수 있다.

자료 더하기

행주 대첩비

경기도 유형 문화재로,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기 위해 1602년에 설립하였다. 비문에는 1593년 2월 권율이 일본군의 공격에 맞서 육박전으로 승리하고 적군의 깃발·투구·갑옷·무기 등을 노획한 혁혁한 전과가 쓰여 있다. 또한 좋은 가문에서 비롯된 인격과 덕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밖에 없었으며, 나아가 이를 기리지 않을 수 없어 비를 세운다는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 「행주 대첩비」

수업 도움 자료

교과서 수업 안내

교과서 7쪽은 주제와 관련한 읽기 자료로 구성하였다. 임진왜란이 오랜 기간 이어진 전국 규모의 전쟁이며, 그 흔적이 지금까지도 많은 지역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용어 해설

화포 대포처럼 화약의 힘으로 탄환을 쏘는 대형 무기를 이르는 말이다.

사회 특독 생각

금산 칠백의총

임진왜란 때 왜군과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700여 명의 병사들을 위한 무덤과 사당이다. 조헌은 의병장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충청북도 옥천에서 1,700여 명의 의병을 일으켜 영규와 합세하여 충청북도 청주를 탈환하였다. 이어 충청남도 금산에서 왜군을 막기 위해 남은 군사 700여 명과 함께 장렬히 싸우다 전사하였다.

그들이 전사한 후 조헌의 제자인 박정량과 전승업이 시체를 거두어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칠백의총이다. 1603년에 중봉조헌선생일군순의비를 세우고, 1647년에 종용사를 세워 700 의사의 위패를 모셨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의총을 허물고 순의비를 폭파하였으나, 금산 사람들이 비석 조각을 감추어 보존하였다. 1971년 깨어진 조각을 다시 붙였으며, 2009년 재차 복원하고 비각도 새롭게 건립하였다.

- 국가 문화유산 포털 누리집, 「금산 칠백의총」



교수·학습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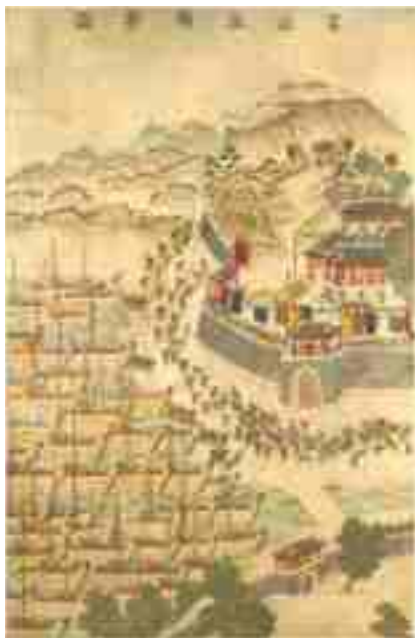
자료 1 「부산진 순절도」

교과서 68쪽

임진왜란 당시의 격전을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은 「동래부 순절도」와 함께 1709년에 처음 그려졌으나 소실되었고, 1760년에 동래부 화원이었던 변박에 의해 개모(改模)되었다. 그림의 내용은 1592년 4월 이틀간에 걸쳐 부산진에서 벌어졌던 왜군과의 전투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대부분의 기록화가 그러하듯이 이 그림 역시 격전의 장면을 화폭에 효율적으로 담기 위해 높은 각도에서 내려다보는 방식의 부감법이 사용되었다.

화면의 오른쪽 중단에는 부산진의 성곽이 그려져 있고, 그 대각선상으로 성을 공략하기 위해 반달형으로 겹겹이 에워싼 왜병들이 묘사되어 있다. 성곽에는 검은 갑옷 차림의 부산 첨사 정발은 중심으로 죽기를 결심한 듯 비장한 모습의 수비병들이 단호하게 그려져 있고, 그 맞은편으로 이를 공략하려는 왜병과 왜선들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어 당시 전력의 심한 격차를 실감하게 한다.

이 작품은 인물과 건물이 모두 정밀하게 그려져 있으나 전반적으로 화격이 높지 못하다. 특히 구도나 필치 등에서 경직성이 현저하게 나타나 있어 작품적인 우수성보다는 사료적인 가치가 더 큰 작품이다.



◀ 「부산진 순절도」
(육군 사관 학교)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 「부산진 순절도」

자료 2 임진왜란의 시작이 담긴 기록

교과서 68쪽

적선이 바다를 덮고 몰려왔다. 부산 첨사 정발은 마침 절영도에서 사냥하다가, 조공하러 오는 왜인들로 여기고 대비하지 않았는데 미처 진(鎭)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적은 이미 성으로 기어올랐다. 정발은 어지러이 싸우는 중에 전사하였다. 이튿날 동래부(東萊府)가 함락되고 부사 송상현이 죽었으며, 그의 첩도 죽었다. 적은 드디어 길을 나누어 진격하여 김해, 밀양 등 부(府)를 함락하였는데 경상병사 이각은 병력을 거느리고 먼저 달아났다. 태평한 세월이 200년 동안 이어져 백성들은 전쟁을 몰랐고 군현들은 풍문만 듣고도 놀라 무너졌다.

— 『선조실록』

임진왜란이 일어난 사실을 최초로 기록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이다. 일본 쪽의 기록을 보면 침략군을 수송하였던 병선은 700여 척에 이르는 대선단이었다. 그럼에도 부산 첨사 정발은 침략군을 조공 선단으로 오인하였다. 일본의 침략이 있을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 『한겨레』, 2012. 3. 30.

자료 3 임진왜란 당시 의병의 활약

교과서 69쪽

임진왜란 당시 조선 의병의 전력은 일본군과 비교하면 형편없었지만, 이들의 봉기와 분전은 대단한 성과를 남겼다. 무엇보다 그들의 활약은 연이은 패전으로 일본군을 ‘신병(神兵)’으로 여길 만큼 깊은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조선의 관민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었다. 또한 관재우, 고경명, 조헌 등이 이끄는 의병에 의해 일본군은 전라도에 진입할 수 없었다. 전라도가 보전됨으로써 조선군은 전쟁 수행 역량을 유지할 수 있었고, 끝내 반격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강운천 외, 『16세기 성리학 유포니아』

권율의 본관은 경상북도 안동이고 자는 언신(彦愼), 호는 만취당(晩翠堂)·모악(暮嶽)이다. 그의 9대조는 고려 후기의 유명한 문신인 권부였다. 권율의 출세는 다소 늦었다. 그는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0년 전인 1582년에 45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전란이 일어나자 그는 광주 목사(牧使)에 제수되었다. 권율은 처음에 전라도 관찰사 이광과 방어사 곽영 휘하의 중위장으로 배속되어 도성을 수복하기 위해 복진하였다.

처음이자 중요한 전공은 이치(梨峙) 전투였다. 개전 석달째인 1592년 7월 8일, 권율과 동북 현감 황진 등은 금산(錦山) 서쪽의 이치에서 고바야카와(小早川隆景)가 이끄는 왜군을 맞았다. 그들은 황진이 부상당하여 후송되는 격전 끝에 승리할 수 있었다. 두 번째의 승전은 수원 독성산성 전투였다. 같은 해 12월 권율은 도성 수복을 위해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복진하여 경기도 오산의 독성산성에 주둔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우키타(宇喜多秀家)가 이끈 왜군과 접전하여 다시 승리를 거두었다.

행주 대첩은 1593년 2월 12일 오전 6시 무렵 시작되었다. 왜군은 우키타의 지휘 아래 3만여 명의 군사를 7개 부대로 나누어 진격하였다. 병력으로 보면 조선군은 4~5배 정도의 열세였다. 그때 조선군은 활·칼·창 같은 일반적인 무기 외에 화포와 석포(石砲: 돌을 날려 보낼 수 있는 대포) 등의 특수 무기가 있었으며, 성책을 이중으로 만든 상태였다.

왜군은 모두 제1 성책을 넘지 못하고 격퇴되었다. 총대장 우키다는 격노하였고,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도 전진하여 제2 성책까지 다가왔다. 그러나 조선군은 다시 반격하였고, 우키다와 이시다를 집중적으로 포격하여 부상을 입혀 격퇴하였다. 이후 왜군은 제2 성책을 공격해 일부를 불태웠다. 조선군은 위기에 몰렸지만, 승군의 활약으로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왜군은 승군의 일부를 무너뜨리고 성 가까이 진격하였다. 이때 조선군과 백성들은 권율의 지휘로 합심하여 행주산성을 지켰다. 무기가 떨어진 조선군은 투석전을 폈는데, 이때 부녀자들은 긴 치마를 짧게 잘라 거기에 돌을 운반해 전투를 도왔다. 조선군이 승리하며 권율은 중요한 장수로 급격히 떠올랐다.

- 김범, 「인물 한국사: 권율, 행주 대첩의 명장」




수업 효과

임진왜란 극복에 기여한 인물들을 릴레이 만화의 형식으로 소개하게 할 수 있다. 모둠원들과 돌아가며 만화를 그리고 해당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의 활동을 되새기고 역사적 교훈을 찾아보도록 한다.

수업 방법

- ① 4~6명의 학생이 모둠을 구성하도록 한다.
- ② 릴레이 만화로 소개할 인물을 정하고 만화에 담을 내용과 장면 등에 대해 토의하도록 한다.
- ③ 첫 번째로 그림을 그릴 사람을 정하도록 한다.
- ④ 첫 번째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첫 번째 칸에 이야기의 핵심 장면을 그린다. 그림을 다 그린 후에는 오른쪽에 있는 모둠원에게 활동지를 넘겨주도록 한다.
- ⑤ 활동지를 넘겨받은 사람은 다음 칸에 이야기를 이어 그리도록 한다.
- ⑥ 위 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칸에 그림을 그리면, 빠진 내용이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모둠원들과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 ⑦ 활동지 마지막에 릴레이 만화를 그리며 얻은 역사적 교훈을 함께 정리하여 써 보도록 한다.

추천 도서 및 영상, 관련 누리집

-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 관계』, 역사 비평사, 1999.
-  문화유산 채널, 「행주 대첩의 비밀」
-  고양시 행주산성 <http://www.goyang.go.kr/haengju/>

①-3. 민족 문화를 지켜 나간 조선

임진왜란 극복에 기여한 인물 칭찬하기

반

번

이름:

1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을 조사해 봅시다.

조사한 인물	
인물이 활약한 사례	

2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에게 상장을 수여해 봅시다.

상

귀하

위 사람은 임진왜란 당시

따라서 그 공로와 업적을 크게 칭찬하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드림



①-3. 민족 문화를 지켜 나간 조선

임진왜란 극복에 기여한 인물 칭찬하기

반

번

이름:

1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을 조사해 봅시다.

조사한 인물	곽재우
인물이 활약한 사례	곽재우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열흘도 안 되어 고향인 경상남도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으로 모은 의병을 이끌고 여러 전투에 나가 일본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2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에게 상장을 수여해 봅시다.

뛰어난 용기 상

_____ 곽재우 _____ 귀하

위 사람은 임진왜란 당시 가족과 고장을 지키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의병을 일으켜 전쟁을 극복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그 공로와 업적을 크게 칭찬하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 ○○ 년 ○월 ○일 별이 드림